# 여러분은 정말로 자기 주인공의 불성을 믿어야 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 해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엔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는 한 종자입니다.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아서 또 참외씨를 심으니까 그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를 또 열리게 할 수밖엔 없죠.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박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얘깁니다. 촛불 하나가 그것을 다 대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생각에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도 가고,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만 이것은 물 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어디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아주 가긍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믿고 하나를 들고 그렇게 위 아래를 껴잡아서, 둥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 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자기네들이 무시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나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나가서 외박을 하고 이코에다 뭐 대는 거 있죠? 그거 뭐야? 허허허. 응? 본드가? 난 이름조차도 모릅니다. 그거를 하고 노오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학교에 가서 만날 빌고 그래도 만날 선생님들은 퇴학시킨다고 그러고, 그러자 이거는 한이 된 거죠. 그것도 3대 독자라는데 말입니다. 허, 이거 이럭하니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오게 돼서 오로지 그냥, 오로지 그냥, 그저 자나깨나 자나깨나 아마 진실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넉넉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온통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공부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허허허.

오직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하루는 덧정이 없어서, 장독 이렇게 있는 데에 그 큰 항아리 김치 항아리를 죄다 내놓고 이렇게 씻는데, 그 물을 쏟고 옮기고 이러는데 느닷없이 오더니 "어머니, 제가 좀 옮겨드리고 이렇게 거들어드리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게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게, 허허허, 좋아도 내려앉고 언짢아도 내려앉고 '이게 혹시나 미쳤나?' 허허, '어디서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눈치만 보는데 이렇게 잘 해놓고선 "어머니, 속 많이 썩혀드렸죠?" 하면서 "어머니, 이젠 속 안 썩혀드릴게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고 부모들을 모셔야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게 됐으니까 검정고시를 봐서 하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교 지금 거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요컨대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주인공의 불성을 믿고, 티끌 하나 남기지 말고 몽땅 다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놈이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 이래야만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만치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다 항의를 합니까?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안됩니까? 아, 잘되다가 안됩니다. 잘되다가, 잘되니깐 마음이 헤벌레해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할 탓이지 나한테다 항의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잘 아시고 "너희 자체에다 제각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될 테니깐 너희 맘대로 해라.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깐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다 되 입력을 한다면 그 앞서의 입력된 게 없어질 수 있지만 그 나오는 자리에다 되놓지 않는다면은 그 입력된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윤회성 세균성 영계성, 이 모두가 없어지기커녕 점점 차곡차곡 더 쟁여지니 그거를 없애려면 그것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다시 놔서 입력이 돼야 그 앞서에 입력된 게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데도 모른다면 난들 어떡합니까? 응?

그래서 우리 이 도량에서도 행자들이 들어오면 잘못됐건 잘됐건, 잘했건 못했건 모든 게 내 탓이다 이거야. 내 탓! 내 탓! 잘해서 칭찬을 받았으면 그것도 내 탓, 잘못해서 꾸중을 들었어도 그것도 내 탓. 누구를 나무랄 게 없어. 모두가 제 탓이기 때문에, 제 탓인 그 자체 내에서 꼭 누(累)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질서를 지켜야 하고, 벌써 누를 끼친다 하면 자기가 누가 되기 이전에 벌써 이 전체가, 부처님 법이 그냥 누가 되는 거죠. 오는 것도 막지 말고 가는 것도 잡지 말고 즉,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도량에 누가 소를 한 마리 잡아왔다 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공손히 마음으로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부처님 진짜 법입니다. 하치않은 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정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치않게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소립니다. 하다못해 사탕 한 봉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에이, 이까짓 거를 가져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애는 여덟이나 낳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불불불불 떨고 밥도 못하고 몇 해를 두고 그렇게 사는 집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셋방에 들어있고 가져올 게 없으니깐 사탕 한 봉지를 가져와서 우리 부인하고 자식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觀)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탕 한 봉지로 천도가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6·25 때 부모들이 치마를 둘러 쓰고서 그냥 총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마를 둘러쓰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부인이 총 맞은 형세를 하고는 눈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냥 이러고 헤매니 그거, 그거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지극한 마음으로 남자가, 부처님도 안 계신데 방석에다가 그냥 절을 너무 곱게 삼배를 하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치않은 그 방석에다가, 거기다가 저렇게 지극하게 남자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 정성이 돈으로 치면 억만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이제는 씻은 듯 부신 듯 나아서 그 애들이 대학, 대학원을 다 다니게 됐고 남편은 승진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여기를 오게 돼서 우리 남편이 승진을 또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제는 집도 있고 다 잘사니까. 그래서 승진이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 것도 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만 정성을 백일을 두고 들였어요. 그랬는데 그만 승진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안됐다고 그냥 아주 안 나오는 겁니다. 허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도 마음공부 하나도, 몇 해가 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더니만 언젠가 한번은 와서 턱 달겨들어요. 그러고는 "스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다 왜 죄송하다고 그러느냐. 난 하등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빠 대신 승진이 돼서 월남에 간 사람이 그냥 해골만 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후퇴하는 것도 법이고 전진하는 것도 법이라고 그러시더니 만약에 우리 아빠가 그때 승진을 해서 월남에 갔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 그렇게 우리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처님 법이 얼마나 묘법입니까? 부처님 법이 묘법이라 하니까 저기 앉아 계신 (등 뒤의 부처님을 가리키시며) 부처님만 부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불어 같이 모두 부처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죠. 저 부처님의 형상은 바로 여러분의 형상이고,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부처님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라고. 우리가 떠나면 부처님도 없으실 거고 부처님이 떠나면 우리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깐 더불어 같이 사는 그 가운데서 묘법이 나고 또 부처님의 천차만별의 그 법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중하게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이라면 마음내는 거는 바로 바퀴입니다.

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 모셔놓고 문수 보현 이렇게 모셔놓죠? 그렇게 모셔놓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뜻을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처고, 마음을 내면은 법신이 되는 겁니다. 문수가 법신입니다. 법신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보현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모두 움죽거리는 거 말입니다. 나와 더불어 같이 위해서,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보현이 화(化)해서 즉, 화신(化身)이 돼가지고 응신(應身)이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속에서 수천,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응신이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보살들이 다 부처님 속에서 나온다 이런 거죠. 이러니 천차만별로 화해서 변하고,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어느 중생에게 아니 응하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짐승한테 들어가도 짐승과 둘이 아니게 돼주셔서 건지시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천차만별로 화해서 건져주시니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이란 이름은 모든 일체가 다 종합된 공심(共心)입니다. 공심·공체(共體)·공생(共生) 또는 공용(共用)·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는 이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고**
**아무리 우리 도량에 누가 소 한 마리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공손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부처님 법입니다.**

※위 법문은 1995년 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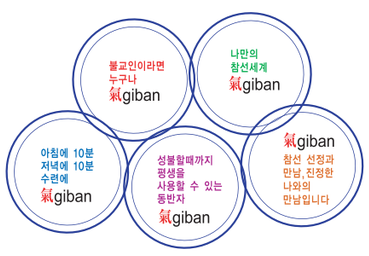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